닭고기 소비 주춤… 가격 '하락세'

정부의 시장개입 · 브라질산 불량 닭고기 파동에 의한 소비 감소로 보여

닭고기 가격이 정부의 시장개입과 브라질산 불량 닭고기 파동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기준 산지 육계 가격(대닭/kg당)은 1600원으로, 이는 지난 3월 최고점인 kg당 2300원에 비해 700원가량 하락했다.

육계 가격은 지난해 11월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6일 kg당 23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업계에 닭고기 가격 안정을 요구하자 지난달 11일부터 하락세를 이어나갔고, 지난달 28일에는 생산비 수준인 140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세를 보여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닭고기 가격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브라질산 불량 닭고기 파동에 의한 소비 감소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브라질 내 대형 닭고기 유통 및 수출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화학처리 후 불법 유통을 한 것이 브라질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정부의 조사 결과 해당 유통업체로부터 국내로 수입된 물량은 없었지만, 소비자들이 닭고기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져 국내산 닭고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닭고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닭고기 가격 상승을 억제한 것도 있지만, 브라질산 불량 닭고기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안전성에 대해 불안함을 느껴 국내산 닭고기 소비 감소로까지 이어진 게 가장 크다"면서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대한 위생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산 닭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통해 닭고기 소비를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4월에 닭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월 닭고기 도계 마릿수가 AI 여파로 인해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7199만마리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월에는 봄철 행락객 증가와 야구 시즌 개막, 유통업체 판촉행사 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해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닭고기 소비 증가를 위해 조리가 간단한 닭고기 가공육 위주의 할인.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롯데마트는 이달 초 생닭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닭고기 소비 판촉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AI가 안정화되면 닭고기 소비 절벽도 끝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 증가를 위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번 닭고기 판촉행사로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김제 광활농협 신광식 조합장, 이달의 우수 조합장 선정

취임 3년 만에 93개 농 · 축협 중 최상위권 끌어올려

전북농협은 5일 김제 광활농협 신광식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 조합장'으로 선정했다.

전북농협은 5일 김제 광활농협 신광식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 조합장'으로 선정했다.

신 조합장은 2010년 조합장 취임 이후 광활농협의 합병권고 탈피를 위해 농가를 돌며 출자금 증대를 실시했고 상호금융 대출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연체비율을 0.5%까지 낮추는 등 자산건선성도 높여갔다.

또한 취임 후 평균 당기순이익 123%, 영업손익률 255%, 경제사업 66%, 조합원 배당 167.7% 성장이라는 놀라운 실적도 거뒀다.

특히 조합원의 영농편의 제공과 실익 지원을 위해 감자 선별장 운영, 종자용 감자 재배, 비닐 · 상토 등 농자재 공급을 적극 실시했으며, 주작목인 감자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국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광활농협의 과감한 변화를 지켜본 조합원들은 농협사업 이용 및 출자금 증대 등으로 화답했다.

그 덕분에 광활농협은 2013년 합병권고에서 벗어난 뒤 2015년 구조개선 우수농협, 2016년도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우수사무소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신광식 조합장은 "광활농협을 작지만 조합원 중심의 강한농협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섬김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광활농협처럼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장을 적극 발굴해 더욱 더 농업인을 위한 실익사업을 추진하는 분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과정 개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5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공사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전북대학교 농공학과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과 김준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및 대학관계자와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과정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지역개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준채 본부장은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가 전문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교육을 통해 전북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해 농어촌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올해 첫 신입 객실승무원 입사

전북대표기업 이스타항공이 봄을 맞아 풋풋한 신입 승무원들을 맞이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통해 27명의 신입객실승무원을 채용했다.

역대 최대 채용 경쟁률인 3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채용에서 뽑힌 26명의 신입 승무원들은 9주간 이론 및 현장 실습을 바탕으로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교육을 받는다.

9주간 이뤄질 교육기간동안 기내 안전을 위한 비상착수훈련, 비상탈출, 응급조치, 항공보안을 비롯해 객실서비스, 비행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며 최종 교육 이수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스케줄 근무에 투입된다.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지역할당제 통해 지속적으로 30% 이상 전북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응시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지방현장 면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주관한 채용 오디션 '잡영챌린지' 입상자, '미스전북', '미스변산' 지역 미인대회 입상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연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하반기 진행된 '잡영챌린지 시즌4'에서 최종 합격해 입사한 이화수씨는 "이스타항공이 지역인재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 줘서 승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기내 안전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입사 소감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다문화가정 '多정多감 문화교실' 참가자 모집

전북은행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多정多감 문화교실' 제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문화교실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4월부터 총 5회기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제1기 과정은 메이크업, 행동유형검사, 의사소통방법 등의 일상생활 지식함양을 위한 유익한 문화강좌와, 디퓨저, 압화 스탠드, 미니 서랍장, 컵케이크 만들기 등 정서지원을 위한 흥미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북은행 직원이 함께하는 본점 체험을 통해 은행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사기 예방 및 재테크교육을 실시해 경제활동을 위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14일까지이며, 대상자 발표는 17일이다. 접수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경진원,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4개 지정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평가에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졸업팀 4개 기업이 모두 지정 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이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술개발, R&D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일반인력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안재용 기자

중기청, 기술교류협력 유공자 정부포상 접수

전북중소기업청은 기업간 교류 · 협력문화 조성 및 융합저변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 등을 발굴 · 포상하기 위해 28일까지 정부포상을 신청 · 접수한다.

올해 정부포상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확정되며, 포상수여는 10월 23일에 개최되는 '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 총 51점이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www.koshb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